동지가 금속노조다!

# 대전충북지부

05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5년 11월 23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 압수수색으로 탄압시작!

**노동운동의 심장, 민주노총 침탈!**

박근혜 정권이 민중총궐기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진압을 덮기 위해서 공안몰이를 시작했다. 경찰은 21일 새벽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8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중총궐기를 비롯해 각종 집회의 불법시위 증거를 찾겠다는 것이다. 정권은 10만명의 분노를 차벽과 최루액 물대포로 가로막고, 70대 농민을 사경을 헤매게 만들었다. 사회적 비판이 '폭력진압'에 집중되자 본격적인 공안탄압을 시작했다.

**공안탄압에 물러서지 않는다**

공안몰이는 예상된 일이었다. 정권은 민중총궐기 전부터 불법시위 운운하며 광화문 집회를 원천봉쇄했고, 대회 직후에는 주동자를 색출해 엄벌하겠다며 협박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참가 단체 대표자들과 관련자들 124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고, 한상균 위원장을 호위했던 1명을 구속했다. 무차별 소환과 구속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것이다. 민주노총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95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런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민중총궐기에서 확인했듯이 민중들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다. 이번 공안탄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다. 12월 5일 2차 총궐기에서 민중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2차 총궐기로 다시 모이자**

생존권을 외치는 민중들에게 돌아온 것은 탄압 뿐이었다. 정권은 성난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그렇다면 막힌 귀를 뚫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노동개악, 밥쌀 수입,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지난 1차 민중총궐기를 넘어서는 더 큰 투쟁을 만들자. 12월 5일 2차 총궐기에서 공안탄압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다시 한 번 더 큰 힘을 모으자!

## 이인근 콜텍지회장 단식 농성 돌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막말, 사실 왜곡이 죄없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9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콜트_콜텍이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았다고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지껄였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콜트_콜텍 노동자들은 지난달 5일부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방종운 콜트지회장이 단식 45일만에 병원으로 실려갔다. 단식농성은 이인근 콜텍지회장이 이어받았다.

단식이 45일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 내놓지 않았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면서도 사과를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거짓으로라도 노조를 공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콜트_콜텍 노동자들은 8년이 넘은 부당 정리해고에 대해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며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폭력 살인진압, 공안탄압
강신명 경찰총장 파면!

노동개악! 민생파탄!
박근혜 퇴진!

## 촉구대회

*** 대전**
11/23(월) 14시 대전경찰청
*** 충북**
11/23(월) 13시 충북경찰청